합격 대학 중 어느 대학을 갈까

미국 대학 입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지원 시 10개 이상의 대학에 복수 지원을 한다. 그 결과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당연히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하나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진학 대학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학업 및 진로 목표

- **전공 분야:** 각 대학의 강점과 특징을 비교하여 자신의 전공 분야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택한다. 자신이 하려는 전공이 정확히 있는지 확인한다.
- **교수진:** 관심 분야의 전문 교수진이 있는지, 원하는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졸업 후 진로:** 각 대학의 졸업생 진로 통계를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 목표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한다.

■ 학비 및 재정 지원

학비는 대학 선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

- **총 학비:** 학비, 생활비, 기타 경비를 고려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한다.
- **재정 지원:** 장학금, 스터디워크 기회 등을 비교하여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곳을 선택한다.

■ 캠퍼스 환경 및 분위기

- **위치:** 부모와 함께 살거나 집과 가까운 곳을 선호할 것인지, 또는 멀리 떨어진 곳을 원하는 지에서부터 대도시 대학 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대학을 선호할 것인지 등에 따라 대학 선택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 **규모:** 지원자에 따라 너무 큰 대학이나 반대로 너무 작은 규모의 대학은 원치 않을 수 있다. 대규모 대학이라 할지라도 전공분야 과목에 치중하는 대학 3·4학년이 되면 학급 규모가 작아져 전공학과 동기생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
- **학생 구성:** 학생들의 다양성, 교류 활동 등을 고려한다.

■ 기타 고려 사항

- **기숙사:** 기숙사 생활을 원하는 경우, 기숙사 시설 및 비용을 비교한다.
- **특별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한다. 대학 생활에서는 다양하고 풍족한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대학의 학생 클럽이나 스포츠팀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 살핀다.
- **종교:** 지원자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대학의 교육 분위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종교와 관련된 대학을 선호할 수도 있다.

낮은 고교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려면

대입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고교 내신성적(GPA)이다. 그런데 내신성적이 낮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신성적 올리도록 노력해 보자. 단 11~12학년의 경우 이런 속성법들이 GPA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덜 어려운 과목 수강

대입 전형을 생각하면 도전적 과목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 학점이 너무 낮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은 이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GPA를 개선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낮은 GPA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난이도가 낮은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어려운 과목에서 고군분투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전체 학점을 올릴 수 있다. 난이도가 낮은 수업에서 A를 받기 시작한다면 GPA는 4.0으로 뛰어 오르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 수업 더 많이 듣기

일부 학생들은 손사래를 칠 수도 있지만 이 방법 또한 GPA를 속성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공부하기 힘든데 왜 수업을 더 들어야 하나?"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GPA를 구성하는 것은 필수나 핵심 과목만이 아니라 선택과목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양한 선택과목들을 수강한다. 어려운 핵심과목에 비해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GPA를 빨리 올릴 수는 있지만 명문대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대학들은 지원자가 어떤 특정 과목들을 편중해 수강하고 GPA를 받았는가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선택과목을 선택하면 학점을 빨리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다. 핵심 과목에서 성적을 올리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입전형에서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핵심과목 성적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가중치 GPA 수업 성적 집중

가중치 GPA(Weighted GPA)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수강하고 있는 AP나 어너 클래스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중치 GPA에서는 종종 난이도가 있는 과목에 대해 4.0이 아닌 5.0으로 측정한다. 이는 어너 클래스에서의 B학점은 4.0으로, A학점은 5.0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성적이 GPA에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SMTACUPUNCTURE 한방병원
• SPORTS MOTION THERAPY •
• 스포츠 손상 • 관절 질환 • 현대인의 목 • 어깨 통증 • 자세변형
한방치료 / 물리치료 / 최신 장비 사용
☆침, 부항, 한약
☆추나요법(자세교정)
☆운동요법

김창배 L.Ac
전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경력
• Acupuncture L.Ac
• 한국 물리치료 경력 20년 이상
• 한국 스포츠 물리치료 정회원
• 한국 야구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진료과목
• 교통사고 후유증
• 테니스, 골프 엘보우
• 손목 터널 통증 / 족부 통증
• 퇴행성 관절질환
• 오십견 / 안면신경 마비

〈각종 보험〉
서울 메디칼 그룹
HSA / FSA
비보험 환영

T.714.519.3022
100 N State College Blvd Suite E, Fullerton, CA 92831| www.SMTAcupuncture.com